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25	11. 01	11. 08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최상우 형제
성 경 봉 독	정해욱 형제	김정규 형제	최상우 형제

교회소식

10월의 축복 인사 : 감사하며 행복한 10월 되세요!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Sommerzeit 해제 - 25일(주일)부터 시간이 변경됩니다(스마트폰 시계로 확인하세요)
4. 등록 - 강지현 자매께서 등록해주셨습니다(극장 아카데미)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36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정환영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계 3 : 7 - 13(신p 402) (Offenbarung 3:7~13)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을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선교훈련을 위하여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보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져도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3.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지키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내 앞길의 문을 닫으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에 대해 나눠보세요.